

다산포럼



**박종권**  
호서대학교 시용합대학 교수

“전하 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제 46대 대통령 당선자는 승리 연설에서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다. “세울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으며, 씨 뿌릴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다. 지금 미국은 치유할 때이다.”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의 한 구절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경구로 유명한 바로 그 성경이다. 바이든은 선거 기간 동안 침엽하게 찢기고 갈라진 미국의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자신에게 제기됐던 신앙심 의혹을 해소하려 성경을 이용해 ‘치유’를 강조했다.

원래 내용은 대구(對句) 형식이다. 바이든이 인용한 부분만 소개하면 ‘헛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치유’의 상대편은 바로 ‘죽임’이 있다. 서로에 대한 ‘악마화’로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닌 공멸의 전쟁터로 만든 현실을 우려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발언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처신이 관건이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난진이퇴(難進易退)가 아쉽구나

않고 법정투쟁을 다짐했다. 트위터를 통해 “나는 선거에서 이겼다. 큰 (표) 차이로”라면서, “합법적인 투표는 이겼는데, 민주당이 불법적인 투표까지 개표하면서 승리를 훔쳤다”고 주장한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라며 버틴다.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말도 차면 기우는데, 정작 자신은 몰라날 때를 모르는 것 아닐까. 결국 문제의 핵심도, 푸는 열쇠도 트럼프 본인이었다. 권력의 맛에 도취된 공직자들이 종종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회한의 뒤끝을 남긴다. 항룡유훤(亢龍有悔)라 하지 않던가.

공직자는 선공후사(先公後私)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 정조 시대다.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어지러웠다. 선비들이 자리를 탐하기 때문이다. 정조가 탄식한다. “난진이퇴(難進易退)가 아쉽구나.”

벼슬에 어렵게 나가고 선선히 물러난다는 뜻이다. 어떤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앉 뒤 가리지 않고 덤석 수락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그 자리에 적합한지, 인사권자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나라와 국민에 해를 끼치게 되고 스스로도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열심히 공직을 수행했는데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물러날 때가 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포 물러나야 한다는 거다. 공직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조는 이러한 자세가 “조정(朝廷)을 높이고 세교(世交)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허탄 명리(名利)를 붙들고 매달리는 풍조에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무너진다는 거다.

맹자가 말한 행장진퇴(行藏進退)도 같은 뜻이다. 무릇 공직자는 나아감과 물러섬을 알아 볼 흐르듯 자연스

럽게 처신(處身)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 이는 선비의 으뜸 덕목이었다. 간혹 “물러나고 싶어도 어지러운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거나 “나라가 부르는데, 간곡하게 붙잡는데 뿌리칠 수 없었다”는 이들도 있다. 현대판 ‘북쪽(北郭) 선생’이다. 연암 박지원의 열화일기 중 ‘호질(虎叱)에 나오는 바로 그 무늬만 선비 말이다.

공직자는 때를 가늠하는 지혜와 함께 ‘말’도 중요하다. 순자(荀子)는 ‘군자필변(君子必辯)’이라 했다. “묵은 포대자루처럼 입을 다물면 허물도 없지만 영에도 없다”고 했다. 단 백성을 위한 논변이라야 한다. 백성이 아닌 자신을 위한 논변은 비록 청산유수일지라도 허튼소리일 뿐이며, 국정의 재앙이라고 했다. 궤변은 난세를 부르고, 사립다운 사람의 말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면서.

트럼프에게 링컨의 통찰을 들려주면 어떨까. 링컨은 나름대로 인물 감별법을 터득했다. 비결은 간단하다. “인격을 알려면 권력을 쥐 보라”! 완장을 차면 본성이 나오듯, 권력을 쥐면 그의 사람 됨됨이가 오롯이 드러난다.

이익(利益)도 그렇다. 조선의 재상 이원익은 “나는 평생 이익을 보면 먼저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니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졸권 권력 핵심에 있었지만, 물러났을 때 뉴욕 한 채 뿐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원익을 잘 몰랐으니 그것이 안타까웠을까. 다산 정약용은 시를 지어 “계 속의 옥(玉)은 공인(工人)도 알 수 없고, 군자는 비단옷 위에 흙옷을 껴입는다”고 했다.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 혹은 개인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허튼 선비’들이 넘쳐나는 요즘의 귀감이었다.

청춘특목



**안태군**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금융감독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신용 융자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특히 30대 미만의 경우는 162%에 달한다. 이는 빚을 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주식 열풍이 단순한 수치에 머무는 현상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와 집값 상승, 취업 시장의 침체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노동이나 예금과 같은 일반적인 저축 방식으로는 집을 구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힘들다. 그래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하기에 따라서 비교적 쉬운 방식인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식과 관련된 정보에 아주

주식(株式)이 주식(主食)이 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주식 열풍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사이버 소통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정보도 더 자주 접하게 됐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경우보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이 게시된다는 점 또한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로 써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온전히 해명하기 어려워 보이며, 좀 더 깊이 있고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는 곧 돈에 대한 관심 증가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청년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의 목적은 당연히 돈을 얻기 위함이다. 돈이 목적인 주식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또한, 삶 속에서 다른 가능성들에 비해 돈의 가능성에도 더 큰 가치를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한정된 재화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선택할 때는 곧 가

치 판단이 이루어지며, 포기된 것보다 선택된 것의 가치를 높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기된 가치가 무엇이든, 선택된 가치는 분명 돈인 것이다.

당연 돈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 돈을 통해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돈 자체를 다는 가치들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돈이 다른 가치들과 가능성을 억누를 때 발생하는 불합리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기 보다는 관련 주식 변동에 관심을 갖거나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는 개인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의 차이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계급을 나누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돈의 차이를 곧 인격의 차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신이 하지 못한 것을 돈이 해낸다.” 약 170년 전 현대적 주식 시장의 탄생을 예견하기도 했던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경제학 철학 수고(手稿)’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은 가장 옳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옳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어쩌면 더욱 예리하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기고

무등산에서 생각해 본 광주·전남 통합 논의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최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지난주 합의를 발표하면서 첫걸음을 뒀다.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그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통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구역으로 인해 조성된 지역 내 소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각 지역마다 여전히 내가 사는 곳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거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지 모르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설블리 초광역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권역 내 균형 발전의 원칙을 내

세우는 이른바 지분 싸움도 거세다. 역량을 집중시키는 커녕 분산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정책은 대응적인 자세로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사·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다. 단순한 행정 통합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적·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융복합을 지향해야 한다. 물리적인 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쯤만 초광역 협력 사업도 지양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탐방에 참여했다. 광주·전남의 활동가, 공직자, 학자 및 청년들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평소 무등산권 지질·생태와 인문·역사 자원의 활용 가치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지역 일꾼들이었다. 이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었다.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 등 1억 년 전 조성된 위대한 자연 유산 앞에서는 광주·전남의 경계가 전혀 없었다. 무등산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질학적 가치와 정신 문화 전파, 생태 자원의 올바른 보존 연구 및 활용,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 등과 같은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 구역상 경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역사·문화·자연에 기반한 인문·생태학적 관점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멀리 내다보고 광주·전남·전북의 대통합 시대도 준비해야 한다. 마한 문화권 정비가 유력한 대안이다.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 복원은 특정 지자체나 특정 부서의 근시안적 사고로 단순하게 추진할 작은 사업이 아니다. 우리 고대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유산을 복원하여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린 네트워크 안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범위를 당연히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전라도 권역이 연대하고 협력하면 가야 문화권 정비에 뒤지지 않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전라도 정도 100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초광역 협력 사업의 본보기다.

아무쪼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의 시대를 연다는 생각으로 인문·생태 자원의 활용에 기반을 둔 초광역 협력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펼쳐주기 바란다. 마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전국을 큰 덩어리로 나누는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전라도 권역이 새로운 부활을 도모하는 초광역 개발의 전진 기지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

社說

잇단 아파트 하자 분쟁 시공사 책임 강화를

‘아파트 도시’ 광주에서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 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제석산 호반힐하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 보수가 기간 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680세대 입주민들을 대신해 호반베르디움(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고법 민사3부는 최근 아파트 외벽 석재 균열 등 주민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12억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수원1단지 중흥S클래스 입주자 대표회의도 중흥건설(주) 등을 상대로 하자 보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광주지법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소송이 속출하는 건 공기업에도 마찬가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전남 지역 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하자 발생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지역 LH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민원만 최근 5년간 1072건에 이른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책임 시공과 품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부실시공은 주민들의 주거 복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파트는 값은 매우 비싸지만 환불·교환은 어렵다. 큰맘 먹고 대출까지 해서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흠결이 있다면 입주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사들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분양과 형식적인 감리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제도 또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광역 협력사업 적극 발굴해야

광주와 전남이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춰 낙후를 벗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부터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차 주장해 온 바다. ‘한국 뉴딜’을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총력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 국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 시도는 광역 기반시설, 지역균형 뉴딜사업, 미래 전략 산업 등과 관련 조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양 시도는 오는 12월 순순계 열리게 될 광주·전남 상상발전위원회의 내년도 상생 의제에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초광역 협력사업으로는 전남도가 제안한 ‘광주·전남·전북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벨리 조성’ (사업비 8000억 원, 향후 2조로 상향), ‘광주·전남 영산강유역문화권 개발’ (1.2조 원), ‘광주·전남 에그리텍(Agri-Tech) 사이언스파크 조성’ (5000억 원) 등 3개 사업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부산·경기 초연결 AI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1800억 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와 인근 전남 시·군,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 등을 연계하는 광역 철도망 및 도로망과 함께 자동차·철강·에너지·화학 등 지역 기간 산업 간 융복합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냐 양 시도는 긴밀히 협력해 더 늦기 전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無等鼓**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미국 북동부 5대주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일컫는다. 공장 설비에 ‘녹이 슬었다’(rust)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와 중북부의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졌다. 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

때배를 당하고 말았다.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 벨트에서 초반에는 크게 뒤지다 피패리는 추격전 끝에 막판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바이든의 승리’ 보다는 ‘트럼프의 패배’에 방점이 찍힌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치러질 한국 대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여권에 비해 야권의 대선 주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아직까지는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자동차산업 등 미국 제조업이 몰락함에 따라 공장들은 문을 닫고 실업률은 치솟으면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러스트 벨트’가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인 이곳 주민들의 분노를 간과했다. 결국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가 러스트 벨트를 집중 공략,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안주했고 힐러리 클린턴의 정권 재창출을 낙관하다가 충격적

의 대선 주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아직까지는

탄탄한 편이다.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한 슈퍼 여당의 ‘독주와 안주’에 대한 민심의 비판은 결코 만만치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여권 지지층에 러스트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민심은 움직이는 것이다.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은 각성을, 야권은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면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